‘순천만 자연생태계’ 낙동강 생물자원관과 공동 연구한다

생태환경 보전과 생물자원의 연구 업무협약

순천시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3월 29일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순천만 생태환경 보전과 생물자원의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2월 순천만 자연생태 연구를 위해 설립된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는 전문인력과 첨단 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생태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있다. 금년 1월에는 환경부로부터 ‘생물자원보전시설’로 등록되어 순천만 생물자원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국가 생물주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 관련 연구를 위해 2015년 6월에 설립된 국내 최고수준의 담수생물 전문 연구기관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생물자원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순천만의 생물자원을 조사 발굴하고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모니터링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생물자원의 전시 및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협업하고 국내?외 심포지움 및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여 정보를 교류등 기대가 높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순천만의 자연생태와 생물자원을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양기관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시, 자전거 무료 대여소 2곳 오는 6일부터 운영

운전면허시험장 · 섬진마을…전 시민 자전거 보험가입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나서

광양시가 자전거 무료 대여소 운영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시는 전 시민 대상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보험 가입 혜택에 이어 오는 6일부터 11월 말까지 광양읍 운전면허시험장 앞과 다압면 섬진마을 앞에서 자전거 무료 대여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이나 방문객들이 자전거를 타고 싶으나, 자전거 도로 접근성과 자전거 이동 등에 제약이 있어 자전거 라이딩을 할 수 없는 점을 착안해 이번 무료 대여소 운영을 추진하게 됐다.

대여소는 수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매주 운영되며, 신분증을 지참하면 누구나 1일 2~3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각 무료대여소마다 성인용, 여성용, 어린이용이 비치돼 누구나 쉽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그동안 국가 자전거 도로 134㎞를 개설하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마음 놓고 탈 수 있도록 3월 5일부터 6월 28일까지 4개월간 마동 중앙하수처리장 내 위치한 자전거 종합지원센터에서 자전거 무상 점검 · 수리 행사를 펼치고 있다.

특히, 시는 2012년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완료했으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전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강봉구 도로보수팀장은 “이번 자전거 무료 대여소 운영이 자전거 타기 붐을 일으키는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료로 빌린 자전거도 타면서 건강도 챙기고 마음도 힐링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동 부취재본부장

나주시, 겨울 감자 시설 재배…고소득 효자종목 각광

벼 수확이 끝난 농한기, 빈 농지를 활용한 겨울철 감자 시설 재배가 전남 나주지역 농가의 틈새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논 이용 소득작물 재배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겨울철 감자 시설재배가 농지이용률 향상 및 작부체계 개선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농업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반적인 ‘봄 감자’ 재배는 3월에 종서를 파종하고, 장마가 오기 전인 6월에 수확한다.

반면, 겨울 시설감자의 경우, 11월 중 파종해 3월부터 수확 · 유통되기 때문에 감자 비수기에 고소득을 창출하는 효자 작물로 급부상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나주시 금천면, 노안면 일대에는 지난해 시범사업 신청농가 7곳을 중심으로 감자 수확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감자 수확량은 시설하우스 1동당 1200~1600㎏이며, 수미 감자 상(上)품이 1박스(20㎏)당 평균 7만원~8만원, 최고 12만원에 출하되고 있으다.

봄 감자 대비 평균 2배 정도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농가에는 적잖은 소득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우리 지역이 타 시 · 군보다 일조량과 기온이 높아 틈새소득원으로 보급가치가 있어 시범사업(5개소)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조생종 벼 재배지의 경우, 겨울감자재배 수확기를 단축, 높은 가격으로 감자를 판매할 수 있는 장점과 더불어 연작장해 없이 감자를 재배할 수 있어 올해도 감자재배기술교육 등을 통해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순천시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사전에 안내하는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금년 4월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차량 운전자가 주정차 금지 구역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차 했을 경우, 운전자의 용무가 끝날 때까지 교통 혼잡이 지속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 소유자의 불평 민원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사전에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전송하여 자발적인 차량 이동과 교통정체에 따른 주민불편 민원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시에서는 불법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를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신청서를 접수받아 왔으며, 4월부터는 스마트폰 앱(주정차단속통합가입) 또는 인터넷을 통해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순천=김종영 기자

화순군,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개최

동복면 유천리 임야 2ha에 편백나무 3000그루 식재

화순군은 3월 30일 제73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갖고 동복면 유천리 임야 2ha에 편백나무 3,000그루를 심었다.

화순군에 따르면 이날 동복면 유천리 일원 대규모 우박피해지에서 열린 나무심기 행사에는 구충곤 화순군수를 비롯해 공직자, 광주세무서 직원, 임업인,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여했다.

유천리 일원은 지난해 5월 대규모 우박 피해지역으로 참가자들은 식재구역과 나무심기 작업요령에 대한 설명을 듣고 3개조로 나눠 편백나무를 식재했다.

구충곤 군수는 “산림에서의 힐링과 치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산을 찾는 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소득과 건강 환경을 위한 경제적 ·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꿔 나가자고”고 말했다.

이어 “화순군은 산림이 전체면적의 71%로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도 중요하지만 애써 심고 가꾼 산림이 한 순간에 잿더미가 돼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봄철 산불 예방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군은 편백나무 등 7종 78만본 약 20억원을 들여 경제수 조림 207ha, 산림재해방지조림 94ha 지역특화조림 21ha 등 총 322ha를 추진 할 계획이며 봄철 216ha 조림사업지중 210ha를 우박피해지에 집중 추진키로 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광양시, ‘유기농 실천 결의대회’ 가져

광양시가 지난 3월 29일 시 문화예술회관 소경연장에서 ‘2018 유기농 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유기농 실천과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다짐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남도, 광양시, 농협 ,유관기관, 농업인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친환경농업인인 김상연 광양시 연합회 사무국장이 친환경농업인 대표로 나서 시 전체 농업인들에게 친환경 유기농업을 실천해 가자고 결의했다.

또 서병윤 쌀 사랑연구회 회장이 쌀값 안정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를 10%이상 참여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어 열린 시 · 군 순회교육에서 강사로 나선 김기평 전남도 친환경 정책팀장은 “유기농업 실천을 통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먹거리 실현으로 농산물 가치를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정현복 광양시장은 “시는 민선6기 7대 역점 시책중의 하나로 ‘경쟁력 있는 부자농촌 건설’ 슬로건 아래 매년 100억 원 이상 추가로 지원해 오고 있다”며, “올해에도 농업부문에 800억 원, 특히, 친환경 농업부문에는 매년 50억 원 이상을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동 부취재본부장